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과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오늘은 젊은이주일이기도 합니다. 늘푸른사랑방, 젊은이사랑방이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성년이 되는 청년을 축하합니다.
- 오후 2시부터 사랑방 탁구대회 결선을 진행합니다.

제 40 - 22 호

2023년 5월 28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박태규 · 전향옥 · 전선희 집사 ( 감사 )  
이어람 집사 ( 생일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결혼, 창조의 신비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결혼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갖 동물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사람이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고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결혼을 세우시고,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며, 새 창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안식하신 후에 두 사람을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중요한 ‘가치’를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지금까지 맺어왔던 다른 어떤 관계보다 가장 친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바로 결혼 서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혼 서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부인은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우선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진정성 있고, 순결하며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의 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 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관계를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진정성 있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 승천과 재림의 모든 과정에서 신실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일치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 한주간의 말씀

“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

<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454장, 219장 / 220장

기도 :

성경 : 역대지상 6장

제목 : 레위의 아들은

### 1. 내용 : 레위인의 족보 (What)

<문단구분>

1~30 레위인 가문

31~53 레위인들의 역할

54~81 레위인의 영토

### 2. 의미 :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Why)

1) 레위인은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섬겼다.

2)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3) 레위인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위해 존재했다.

### 3. 적용 :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How)

1) 좋은 유업을 잘 나누고 전하자.

2) 겸손한 마음으로 땅을 밟자.

3)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자.

## 늘푸른사랑방 청년들의 이야기

얼마 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매우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의 정확한 복제품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까요? 같은 DNA를 가졌다는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라 완벽한 복제품 말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이 든 이후, 저는 이것에 대해 찾아보았고, 적어도 우리 우주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며 우린 영원히 유일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 입자의 특성상, 복제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동일한 존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도 같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위로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구와 저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존재이지만 이렇게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늘푸른사랑방 율리안(Julian) 청년

안녕하세요! 석지인입니다. 최근 저는 어린이사랑방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린이사랑방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늘푸른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슬펐는데, 이번 젊은이 주일을 맞아 잠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5월 첫 주에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어린이들과 교회에서 하룻밤을 보냈었어요. 오랜만의 숙박이라 조금 걱정이 됐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잘 마쳤었습니다. 어린이가 온다고 하니 시간 내어 대신 청소해주시고, 밥 해주시고, 설거지해주시고, 간식 사주시고, 방까지 내어주신 교회의 어른분들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 그 하루를 통해 지금의 어린이들도, 어릴 적의 저도 이렇게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네요. 감사를 표현할 일이 많은 5월이라는 핑계를 대어 이렇게라도 감사를 전해봅니다. 늘 감사합니다. :)

늘푸른사랑방 석지인 청년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장성아 청년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엘서 2 : 28-29  
8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대표기도>

요한복음 5 : 24  
183  
이예은 청년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갈라디아서 5 : 16-26 김범준 청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늘·젊은이사랑방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사십시오” 정태일 목사  
< 성 찬 식 >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197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석지인 청년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인하 박은지/ 봉헌위원 : 박예나/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영,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사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본문은 같은 내용의 문장을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16>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18>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갈시다”<25> 주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십시오’입니다.

성령의 인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모습입니다.<요14:16-18>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요14:26>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십시오’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사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사십시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세상의 법과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은 자신의 경험, 감정,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꿈꿔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연갑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꾸러기 밭에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가지, 옥수수 등 수확을 위해 열심히 작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 유일하게 요즘 수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딸기입니다. 작년 봄에 심은 딸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꾸러기 딸기는 새롭고 특이한데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어서 우리끼리만 먹자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감사한 교장선생님부터 요리선생님, 운전해주는 이용신장로님, 설거지해주는 엄마들 등 많은 분들과 나눠먹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농사지어서 나눠먹는 꾸러기들의 마음은 산과 같이 큼니다.

멋진 경치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있는 포천아트밸리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햇별은 째째하지만 바람이 참 시원한 날이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아트밸리에 올라간 꾸러기들은 눈과 몸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호기심도 많고 재밌는 예술작품들도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꾸러기들은 바람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천주호와 하늘정원을 갔는데 경치가 정말 멋졌습니다. 천주호는 물색깔도 예쁘지만 골짜기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리가 울리는게 마치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돌아가면서 모두 큰소리로 소리쳐보기도 했습니다. 아트밸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정원은 탁 트인 경치를 보여줍니다. 저 멀리 있는 산이 흰히 보이는 멋진 풍경을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꾸러기들은 친구들과 노는 게 좋은지 그네에 앉아서 친구들과 더 많이 놀았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벌써 풀들은 키가 훌쩍 자라서 목공 선생님께서 주변에 제초작업을 해주셨습니다. 풀내음이 얼마나 학교에 머물던지 참 행복했습니다.

또하나 행복했던 일은 축구수업 2회차가 있었던 겁니다.

기대기대를 하고 축구복을 갖추고 학교에 온 친구들이 점심 후에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 다루는 법, 공을 차는 법을 조금씩 익히는 저학년친구들. 잘했지만 더 잘해진 고학년 친구들. 끝난 후 이온음료 한잔은 꿀맛이었죠.

얼마전 다녀온 캠프여행을 기억하시나요~

교사들의 고민 끝에 최고의 한 조와 최고의 조원 한 명을 뽑아 상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 협력하며 잘 마무리한 시현이네 조와 조장을 세워주고 동생들을 잘 살핀 윤아가 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조에게는 티셔츠, 조원에게는 손선풍기가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박수속에 서로 격려와 축하를 보내며 이번주도 학교생활을 갈무리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여름을 코앞에 두고 멋쟁이들은 아주 알차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월요일 오후, 5학년과 이어진 선생님이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체육시간에는 꾸러기 학교 학부모님의 축구 특강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워낙 좋아하는 멋쟁이들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재밌고 유익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성경 퀴즈대회 - 사도행전>이 있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해온 덕분에 성령강림주일 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중국에서 온 마라탕 소스와 멋쟁이들이 직접 장을 봐온 재료로 함께 마라탕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공동생활 식구들과 함께 나눠먹어 더 맛있고 배불렀습니다.

어제는 이돈희 선생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멋쟁이들은 축가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선생님을 축하하고 사랑하는 멋쟁이들의 마음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전해져 모두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 교사 : 이어진 >

## 5월을 보내며

“벌써 5월이 되었네~”라고 말 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말이 되어간다. 미세먼지가 가끔씩 있지만 날씨가 좋다. 바쁜 날은 하늘 한 번 쳐다볼 시간 없는데, 한가한 날은 하늘 색깔이며 나뭇잎 색깔이며 무슨 꽃이 피었는지.... 보들보들한 새순이 얼 만큼 나왔는지 만져보고 미소한 번 짓고 하늘 쳐다보다.... 어느 사이 감자밭에 밭길이 머문다. 감자꽃을 보다가 앉아서 풀을 뽑고 있다. 멧쟁이 친구들이 풀을 잘 뽑아서 많이 없지만 내 눈과 손은 나도 모르게 풀에 레이더를 쫓는다. 고랑을 넘나다니며 레이더에 걸리며 가차 없이 뽑힌다. 누군가가 감자 밭에서 풀을 뽑다가 잘 못해 감자를 뽑아서 살포시 다시 심어 놓은 것을 발견 한다. 뿌리가 끊어진 걸 심어 놓으니 시들어 말랐다. (ㅎㅎ~)

몇 주 전에 심은 참깨 밭에도 가 본다. 나름 새벽부터 열심히 심은 참깨가 잘 자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보니.... 지난번 심을 때 나집사님께서 만들어주신 구멍 뚫린 박카스병 속에 참깨를 한 번 툭 털면 참깨가 3~5개가 떨어지는데 안 나온 것 같아 한 번 더 두드리면 10개가 넘는 참깨씨가.... ‘뭐 다 나오겠어~’ 라고 생각 했던 참깨 싹이 정말 모두 올라와 뚫어 놓은 비닐 구멍으로 확~ 올라오을 본다. 그리고... 깜빡하고 빼 먹고 안 심었는지 군데군데 빈 구멍도 보인다. 다 내가 심은 곳 같다. 빨리 하고 싶어서 게으름 부리다... 예구~ 나 집사님께서 아마도 구멍이 많을꺼라 했는데 내 눈에는 그래도 조금(?) 밖에 없다~^^ 물도 따로 안 주고 흙을 꼭~ 덮었는데 가냘픈 싹이 흙을 밀치고 뽀족 올라오는 걸 보며 대단함을 느낀다.

나의 힐링 시간은 종소리와 함께 사라진다. 아쉬워하며 아이들에게 간다.

하나님은 내가 실망 할까봐 새싹이 잘 올라오게 하셨다. 작은 것 하나에 기쁨이 배가 되니 오늘 하루도 잠이 잘 올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

하나님 알라뷰~ ^^                      그루터기사랑방 이현숙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전도사  
찬 송 : 452장, 454장  
성 경 : 마가복음 9장 42~50절  
말 씬 : 서로 화목하게 하라  
중보기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엘살바도르를 위해>

엘살바도르에서 있었던 축구장 압사사고로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중국 현지 선교를 위해>

- 1)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사회와 압박속에 건강과 안전을 위해
- 2) 맡겨진 사역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해외에 있는 멧쟁이학교 4학년, 5학년을 위해
- 2) 공동체에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여러 일정과 사정으로 공동생활 식구들이 외부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기간입니다. 안전과 순탄한 일정을 위해 그리고 몸이 아픈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더욱 마음모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5월에 생일을 맞은 식구들을 축하하는 전체 모임에서도 이 점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돈희 선생님의 결혼식에 많은 공동체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삶의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공동체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태어난 가정을 다시한번 축복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